

## 고려시멘트, 경영 악화에 전남장성공장 폐쇄…“고용승계 최선”

한국시멘트협회 “호남 기반 탄탄한 업체…폐쇄 상당히 충격”  
 “하반기 건설경기 하락…주요 시멘트사, 비상경영 체제 돌입”

고려시멘트가 경영난을 이유로 전남 장성에 위치한 생산공장 라인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공장을 폐쇄하기로 했다.

21일 시멘트 업계에 따르면 고려시멘트는 지난해 12월부터 장성공장 폐쇄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시멘트 업체에 대한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에 필요한 시설투자 등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지만, 경영 상태는 계속 악화되면서다. 고려시멘트는 지난해 매출액 699억원, 영업이익은 126억원의 적자를 봤다.

고려시멘트 측은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배

출이 적고, 환경 규제가 덜한 고로슬래그시멘트 생산공장을 전남 영암에 준공해 종업원의 고용승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시멘트협회 관계자는 고려시멘트의 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 “과거 협회 회원사였고 호남을 주요 시장으로 시멘트를 판매해 온 탄탄한 업체여서 위기 극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공장이 폐쇄돼 상당히 충격적”이라며 “업계에서도 이번 고려시멘트 장성공장의 폐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고 말했다.

특히 시멘트업계는 고려시멘트의 상황이 최근 일본 시멘트업계에서 발생한 공장 가동 중단 사례와 유사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3월 일본 시장 점유율 약 24%를 차지하는 업계 2위의 우베미쓰시멘트가 원가 부담과 경영악화를 이겨내지 못하고 아오모리 공장의 조업을 중단한 바 있다.

우베미쓰시멘트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시멘트 판매가격을 1톤(0)당 4만9000원 인상했지만 폭등한 국제 원자재 가격을 시멘트

판매가격에 모두 반영하지 못하면서 급속도로 경영 상황이 악화되자 결국 조업 중단을 결정한 바 있다.

시멘트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시멘트 업체들도 지난해 두 차례의 가격 인상을 단행했지만 일본처럼 원자재 가격 인상을 판매가격에 모두 반영시키지 못했다”라며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건설경기 하락도 예상돼 주요 시멘트업체가 비상 경영에 돌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장성=김수권기자

### 서민 부채 적신호 켜지나…카드론·리볼빙 연체율 급등

카드론 연체율 2년만에 1.79%→2.13%  
 리볼빙 연체율도 1.76%→2.38% 급등

카드값을 제때 내지 못하는 사람이 늘면서 카드론과 리볼빙의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론과 리볼빙 서비스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사용한다는 점에서 가계부채 적신호가 켜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21일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 등 7개 카드사 리볼빙 서비스의 연체총액은 1500억원, 연체율은 평균 2.38%인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론 연체율의 경우 총 7600억원, 연체율은 평균 2.13%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리볼빙 서비스는 결제 대금이나 현금서비스 대금 중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해 갚을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급전이 필요할 때는 유용한 서비스이지만, 수수료율이 법정최고금리인 20%에 달해 자칫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그런데도 당장 카드값을 상환할 수 없는 사람들이 늘면서 리볼빙 이용량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1분기 기준 5조5400억원 이던 리볼빙 이월잔액은 올해 1분기 기준 7조 3400억원으로 2년만에 32.5% 증가했다.

리볼빙 연체율과 연체액도 함께 급등했다. 2021년 1분기 기준 리볼빙 서비스 연체액 총합은 1000억원·연체율 1.76% 수준이었으나, 올해 1분기 연체액은 1500억원으로 50%가 증가했고 연체율 또한 평균 2.38%로 급등했다.

특히 카드사별로는 하나카드의 연체율이 3%에 육박하는 등 업계에서 가장 높았다. 우리카드는 2.85%로 전년 동기 1.77% 대비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카드론의 연체율과 연체액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카드론 연체율은 2021년 1분기 6200억원이었으나 지난해 말부터 급격히 증가해 올해 1분기 7600억원으로 늘었다. 연체율도 1.79%에서 2.13%로 증가했다.

카드사별로는 우리카드가 2021년 연체율 1.23%에서 올해 1분기 1.04%로 가장 크게 늘었다. 이어 신한카드가 2.14%에서 3%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다만 현대카드의 경우 2.71%였던 연체율이 2%로 유일하게 감소했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카드론·리볼빙 연체가 급격히 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가계부채의 위험이 대두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카드사의 부실 우려 채권 비율을 뜻하는 고정이자채권비율도 2년 만에 처음으로 평균 1%를 넘어섰다. 2021년 1분기 0.99%였던 비율은 올해 1분기 1.04%로 치솟았다.

최 의원은 “서민들이 연체부담을 덜 수 있도록 고금리의 카드론에 대한 대환대출을 확대하고 리볼빙의 위험성 안내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변용일기자



수국과 행인들 | 절기상 하지만 21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쓴 채 수국 주변을 지나고 있다.

### 광주 고교진학부장 “수능, 공교육 교과과정 출제 바람직”

광주지역 고등학교 진학부장들은 21일 “2024년 대입 수능시험이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출제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는 취지는 바람직하다”며 “다만 학년 초부터 준비되지 못해 어렵다”고 밝혔다.

광주진학부장협의회는 이날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모의평가 난이도와 2024수능 전망, 교과별

대비 방안’에 대해 분석·발표했다.

광주진학은 “6월 모의평가가 끝나고 수능을 5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교육부의 수능시험 출제 기조·출제 범위와 관련된 이슈가 나와 수험생들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다”며 “앞으로 시행될 9월 모의평가에서 국어 비문학 융합 지문 출제 여부, 공정한 변별력을 위한 수학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변화 문제

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험생들은 기출문제와 EBS 수능 연계교재를 꼼꼼하게 공부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며 “EBS 50% 연계가 이번 수능에 구체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 수능 시험일까지 학교수업에 더욱 충실히 참여하는 것이 최선의 대비 방안이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금·토요일 쉽니다 홈페이지 i-honam.com

**2023년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 깨끗한 전남 만들기 함께해요



**사용금지 품목**



1회용 종이컵



1회용 빨대·젓는 막대



1회용 우산 비닐



1회용 쇼핑백



전라남도